

광주서 15년만에 국내 콜레라 환자 발생

경남 남해안 여행 중 섭취한 회 등 해산물서 감염 추정
방역당국 역학조사·모니터링... 집단감염 우려 초비상

광주에 거주하는 50대 남성이 콜레라 확진자로 판정돼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해외에서 콜레라에 감염된 뒤 입국한 환자는 간혹 있었지만, 국내에서 콜레라에 걸린 환자가 발생한 것은 지난 2001년 이후 15년만이다. <관련기사 6면>

2개월째 이어진 폭염 속에 후진국 감염병으로 알려진 콜레라가 국내에서 15년만에 발생함에 따라 보건당국이 콜레라 예방에 적극 나서는 등 긴장하고 있다. 23일 광주시와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7~8일 경남 남해안으로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하고 돌아온 A씨(58·광주 서구)씨가 심한 설사 증세를 보이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입원중 병원으로부터 콜레라 의심환자로 신고됐고, 보건당국은 A씨의 혈청 등에 대한 실험실 검사를 통해 지난 22일 콜레라 환자로 최종 확진했다.

A씨는 그러나 확진 판정을 받기 전 증상이 완화, 퇴원해 자택 격리중이다. 보건당국은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가족 3명을 상대로 추가 감염 여부를 조사 중이다.

보건당국은 A씨가 최근 해외여행을 한 적이 없어 국내에서 감염된 것으로 보고, 여행 중 섭취한 해산물에 의한 감염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는 7일과 8일 현지 시장과 횡집에서 회를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당국은 A씨가 해외에서 수입된 음식을 섭취하는 과정에서 콜레라균에 감염됐

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방문했던 식당 등을 중심으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집단 감염자 발생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만큼 추가 환자 발생 여부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경남 현지 식당에 대한 역학조사는 경남도 방역당국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A씨가 음식을 섭취한 뒤 상당한 기간이 지나 정확한 경로를 밝히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보건당국은 “날이 너무 더워 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인 것이 원인 중 하나로 추정하고 있으며, 해수면의 온도 상승이 콜레라균 번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 관계자는 “음식물을 취급하기 전과 배변 뒤에 30초 이상 손씻기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우리나라에선 지난 1980년(환자수 145명), 1991년(113명), 1995년(68명) 집단감염이 발생했고 2001년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유행이 발생해 162명의 환자가 나왔다.

/최권민기자 cki@kwangju.co.kr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광주국제아트페어 오늘 개막 24일 개막하는 '2016 광주국제아트페어'를 앞두고 23일 오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에서 갤러리부스가 분주히 설치되고 있다. 국내외의 13개국 74개 갤러리, 114개 개인작가가 참여하는 올해 아트페어는 유네스코 특별전, 비엔날레특별전 등 다양한 부대 전시를 진행한다. /김진수기자 jeans@

알립니다

영·호남 문화 대축전



9월 30일~10월 2일 광주전편
상생·교류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양 지역 농·수·축 특산물 판매

영·호남 지역민들이 빛고를 광주에서 만나 정겨운 소통의 잔치를 벌인다.

영·호남 대표 언론사인 광주일보와 매일신문은 총장축제 기간 중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사흘간 광주전편 특별행사장에서 '영·호남 문화 대축전'을 개최한다.

서울·대구에 이어 세 번째인 이번

대축전은 영·호남 화합과 상생을 다지고 접체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 기획됐다.

참가자 모두가 흥겹게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영·호남 지역에서 엄선된 농·수·축 특산물이 준비돼 있습니다.

영남과 호남의 상생과 교류 확대를 목표로 열리는 이번 행사를 통해 두 지역은 라이벌이 아닌 소중한 파트너로 거듭날 것입니다. 민족대통합의 시발점이자 동서화합의 교두보가 될 이번 대축전에 광주·전남·전북 지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행사명 : 2016 영·호남 문화 대축전
- 일시 : 2016년 9월 30일(금)~10월 2일(일)
- 장소 : 광주광역시 광주전편 광주공원 앞 특별행사장
- 주최·주관 : 광주일보사·매일신문사
- 홍보판매부스 운영자 모집 : 호남권 특산물 생산단체(선착순 모집·배치)
- 문의 : 광주·전남 행사본부 062-220-0555, 010-7174-1257

光州日報社

이정현 “새누리에 마음의 문 열어준 호남에 무거운 책임감”

전주서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

“호남정치 대변화 놓치지 않을 것...탕평인사·균형발전 노력”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23일 “새누리당도 호남에서 분명하게 정치의 한 축으로서, 지역갈등의 한 축으로서 분명한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이 대표는 이날 전북도청 4층 회의실에서 열린 ‘새누리당-광주·전남·전북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새누리당은 호남에서 더 이상 소외세력이 아니다. 호남에서 새누리당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준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호남의)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광주·전남 현안과 관련해, “광주에서 추진 중인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우리나라 노사관계를 뒤바꾸는 시도”라면서 “광주의 오랜 숙원이었던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 정부가 이전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는 국토 균형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고 새누리당도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호남에서 여당의 역할에 대해서 “지금 호남에서 정치의 대변화가 일부 있다고 생각한다”며 “호남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정치의 변화를 시도한 것을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호남 지역의 4·13 총선 결과를 비교하며 “한 30여년 동안 (호남을) 거의 독점해왔던 정당(더불어민주당)이 광주·전남에서는 새누리당과 똑같이 1석이고, 호남 전체로는 (더민주가) 3석, 새누리당이 2석, 국민의당이 23석으로 이제 완전한 정치의 정립이 이뤄졌고 전국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사실상의 정치의 평준화가 이

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호남에 대한 탕평인사를 포함한 지역균형발전 등에 더 관심을 가질 것”이라며 “호남의 정서를 대변해 호남의 사랑을 받아내겠다”며 새누리당도 번신과 변화를 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종행기자 golee@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9월까지 무더위...가을태풍 1개 한반도 영향

1994년 이후 22년 만에 최악 폭염을 기록한 여름에 이어 올 가을 광주·전남에는 지긋지긋한 늦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비는 다소 많이 내릴 것으로 예상돼 가끔 해갈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7면>

23일 광주지방기상청이 발표한 '2016년 가을철 기상 전망'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의 기온은 9월과 10월에는 평년보다 높고, 11월에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을 전망이다.

기상청은 9월 전반에는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이 많이 끼고, 후반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고 건조

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온이 평년(21.8도)보다 높고, 강수량은 평년(166.9mm)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을 더위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10월에는 일교차가 큰 가을대기온은 평년(16.1도)보다 높고, 강수량은 평년(47.2mm)과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11월 기온은 평년(9.6도)과 비슷하거나 낮고, 강수량은 평년(48.2mm)보다 적었다.

또, 가을에 태풍이 8~12개(평년 10.8개) 발생, 이 가운데 1개의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생각한다. 반응한다.
지능적으로

The New E-Class. Masterpiece of Intelligence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신성자동차(주) 광주 전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삼부대로 1041 (화정동) / Tel. 062)226-0001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E 300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1,740kg, 자동9단) 복합연비: 10.8km/ℓ (도심연비: 9.6km/ℓ, 고속도로연비: 12.6km/ℓ), 등급: 4등급, 복합CO2 배출량: 161g/km E 300 4MATIC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1,790kg, 자동9단), 복합연비: 10.3km/ℓ (도심연비: 9.3km/ℓ, 고속도로연비: 12km/ℓ), 등급: 4등급, 복합CO2 배출량: 169g/km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품 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